

학생 멘토로 자리 매김한 맘-품지원단

전남도교육청, 2020년 지원단 확장 예정

각 지역 멘토 대표들에 감사패 수여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비발디홀에서 2019. 맘-품지원단 워크숍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 등 따뜻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2019년도 맘-품지원단원으로 활동한 멘토 170명, 후원의집, 22개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및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성찰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1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내 한부모 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배려대상 학생들에게 엄마의 따뜻한 품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맘-품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 아이들이 학교폭력 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전개하는 사업이다.

맘-품지원단원은 도내 거주 어머니 가운데 아이들에게 무보수로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로 공모에 의해 선정된다. 이들은 배려대상 학생, 특히 한부모가정 학생들과 친자식처럼 관계를 맺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맘-품지원단과 함께 '맘-품 후원의 집'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맘-품지원 후원의 집은 미용실이나 목욕탕, 병원과 식당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시설로서 자발적인 후원 약속을 통해 배려대상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이다. 2016년 첫 해에는 23개 업소가 후원의 집에 참여했으며, 2019년 343개로 그 수



여수순천

가 늘어났다. 도교육청은 이들 업소에 '후원의 집' 스티커를 부착해 배려대상 학생들이 맘-품지원단원과 함께 방문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1년 동안 참여해준 맘-품지원단과 후원의 집을 위로하는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송용석 교육국장이 각 지역 대표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과 함께 맘-품지원단 운영방향과 현안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배려대상 학생들이 보

호받고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맘-품 단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민들이 나눔의 기회를 확장해갈 수 있도록 '후원의 집' 운영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송용석 교육국장은 "전남의 배려대상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맘-품지원단과 후원의 집 대표 여러분께 전남교육 가족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전해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더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영광교육청, 제3회 영광교육참여위 개최

영광교육청은 지난 26일 제3회 영광교육참여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영광교육 2020안을 비롯하여 두 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사전에 운영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원충원 방안인, 별도의 충원 없이 현재 인원으로 운영에 대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

본회의에는 담당 장학사로부터 영광교육 방향을 시작으로 5대 교육지표와 역점과제 등영광교육 2020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열띤 토론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일부 위원은 개인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일부 사업에 대해 수준 높은 제안을 하였다.

또한, 회의장 안에 주요사업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들이 참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몇몇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청, 지자체, 마을이 따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합동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하게 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오미화 위원장은 "올해는 참여위원회 조직을 구성했다면 내년에는 소위원회 활성화로 교육 정책 제안과 안전발굴에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 종료 시까지 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후 교육장은 '영광교육 2020 수립에 있어 참여위원들과 소통한 그 자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영광교육 발전을 위해 참여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했다.

영평=서희권 기자

함평교육청, 특수학급 운영계획 수립 논의



무) 및 시 낭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특수교사들이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함평초 특수교사는 "그림책 읽기는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림책과 같은 스토리텔링 수업 진행을 통해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박영숙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원활한 학급 운영의 발판이 되었길 바라며, 그림책 읽기 및 시낭송 등 다양한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김야나 학생, '한국다문화청소년상' 수상

광주 광일고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하 영상을 통해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하며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내 유수의 기관장 및 각국의 대사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다문화 청소년 김야나 학생은 부모님이 우크라이나인으로 한국에 온지 5년 되었으며, 쾌활하고 밝은 성품으로 교내외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올해 4월에 시행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II)에서 5등급을 취득하였다. 이는 한국어학당교육과정을 없이 전공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야나 학생은 "문화와 사회를 아우르는 외교관이 되어 다문화사화에 큰 힘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인호 기자

광주 광일고 김야나 학생(2학년)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리아 타임스가 주최한 '제8회 한국다문화청소년상' 모범 고등학생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다문화청소년상은 한국다문화가족청소년들 중에서 언어, 학업, 예·체능, 봉사활동 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고 리더십 역량을 나타내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희망을 심어주고 다문화사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8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초·중·고학생 11명에게 각각 100만



여수교육공동체, 교육을 디자인하다

여수교육청은 지난 26일 여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여수교육참여위원회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여수교육 계획안이 상정됐다.

'여수교육 2020'안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교육참여위원, 학교 교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소관부서 팀장들이 함께 배석해 참여위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했으며, 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학교폭력대책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지원, 여순 4·3사건 역사교육 추진 등 10여 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여수=김도현 기자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참여위 정기회 개최

신안교육청은 지난 27일 교육참여위원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전라남도신안교육참여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교육적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교육 2020 계획(안)과 전남신안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안)을 상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기남 신안교육참여위원회 부

위원장은 "바쁘신 와중에 교육지원청 업무 관계자분들의 성실한 답변에 깊이 감사하며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로 지속가능한 신안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흥 교육장은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과 소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